

## 노인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경제상황을 경제활동실태, 소득원, 지출실태 등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1. 경제활동실태

65세 이상 조사대상 노인의 29.0%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중 79.3%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한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중 60.4%가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아 21.5%에 달하고 있다. 반면 화이트칼라 직종에 속하는 입법 공무원·고위임직원은 2.0%, 전문가는 1.9%, 기술공 및 준전문직은 1.1%, 사무직원은 1.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 거주 노인(17.1%)에 비하여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취업률(49.1%)이 높는데 이

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공식적인 정년연령이 없는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 노인의 취업실태<sup>1)</sup>

(단위: %)

취업실태		전체	지역		성		연령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취업중		29.0	17.1	49.1	39.8	22.6	40.2	28.5	16.3
계속 희망여부	계속하고 있음	79.3	86.3	75.1	85.3	73.3	82.3	77.3	74.0
	계속하고 싶지 않음	20.7	13.7	24.9	14.7	26.7	17.8	22.7	26.0
직종	고위임직원·관리자	2.0	4.9	0.2	3.5	0.4	2.9	0.7	1.2
	전문가	1.9	4.7	0.3	2.9	0.9	1.9	0.6	3.8
	기술공·준전문가	1.1	2.6	0.1	1.9	0.2	0.8	2.2	0.0
	사무직원	1.2	2.9	0.2	2.3	0.0	1.6	0.7	0.5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8.8	17.5	3.6	7.8	9.9	9.8	10.0	4.0
	농·어·축산업 종사자	60.4	21.6	83.4	62.5	58.3	55.4	65.6	66.8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	2.7	6.4	0.6	3.4	2.1	3.4	2.3	1.6
	기계장치조작원	0.4	1.2	0.0	0.9	0.0	0.8	0.0	0.0
단순노무직 근로자	21.5	38.3	11.6	14.9	28.3	23.2	17.9	22.2	
비취업		71.0	82.9	50.9	60.2	77.4	59.8	71.5	83.7
계 (명)		100.0 (2,371)	100.0 (1,493)	100.0 (878)	100.0 (874)	100.0 (1,497)	100.0 (901)	100.0 (693)	100.0 (776)

주: 1) 취업여부는 무응답 1명, 취업직종은 비해당 1,684명과 무응답 3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39.8%가 취업하고 있어 여자노인의 22.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앞으로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여자노인의 경우 26.7%인데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14.7%로 약 절반 수준이다. 이는 여자노인들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도 상당 부분 비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농·어·축산업 종사 비율이 58.3%로 남자노인의 62.5%에 비하여 낮은 반면에,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28.3%로 남자노인의 14.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5%로 남자노인의 10.6%의 1/1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의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감하는 한편,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높아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로 66.1%이며, 다음이 일이 좋아서로 8.2%,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7.2%, 일손이 모자라서가 6.9%의 순이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읍·면부 거주 노인들은 동부지역 거주 노인에 비하여 일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서 10.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읍·면부에서 청·장년층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부지역 노인의 경우 건강유지를 위해서라거나 스스로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각각 10.5%와 8.3%인데 비하여, 읍·면부 노인의 경우는 5.2%와 1.7%에 머물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절대 다수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다른 이유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보인다. 즉, 여자노인의 경우 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 다음으로 일손이 모자라서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로 각각 9.8%와 7.7%이다. 그러나 남자노인의 경우는 일이 좋아서(11.4%), 건강유지를 위해서(9.5%),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비율이 65~69세 연령군의 경우 70.9%로 70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70~74세 연령군에서는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건강유지를 위해서(10.3%), 일이 좋아서(9.9%)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

한편, 현재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도 상당수 되는데 이들의 44.9%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20.2%, 일자리가 없어서가 14.0%이다. 또한 연로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도 9.5%에 달하고 있다. 이를 자신이 일을 하고 싶으나 상황

노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의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자리가 없거나 자녀들의 만류로 할 수 없이 못하고 있는 노인은 15.1%에 불과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연로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54.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들의 절반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없고, 1/4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노년기를 보내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는 읍·면부(6.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표 2. 노인의 취업 및 비취업이유

(단위: %)

취업 및 비취업이유	전체	지역		성		연령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b>취업이유<sup>1)</sup></b>								
일이 좋아서	8.2	6.5	9.3	11.4	5.0	7.1	9.9	9.1
돈이 필요해서	66.1	65.3	66.5	62.7	69.5	70.9	60.7	60.3
건강유지를 위해서	7.2	10.5	5.2	9.5	4.9	6.1	10.3	5.7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0.7	1.5	0.3	1.1	0.4	1.4	0.0	0.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5.9	5.5	6.1	4.1	7.7	3.9	6.1	11.4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2	8.3	1.7	6.5	1.9	4.8	4.8	1.7
사회적 지위·명예를 위해서	0.2	0.5	0.0	0.4	0.0	0.3	0.0	0.0
일손이 모자라서	6.9	0.5	10.7	3.9	9.8	5.6	7.6	9.4
기타	0.6	1.5	0.1	0.4	0.9	0.0	0.6	2.5
계 (명)	100.0 (673)	100.0 (253)	100.0 (420)	100.0 (339)	100.0 (334)	100.0 (358)	100.0 (193)	100.0 (122)
<b>비취업이유<sup>2)</sup></b>								
일하고 싶지 않아서	20.2	21.9	15.2	19.5	20.5	16.0	19.6	24.7
일할 필요가 없어서	5.5	5.5	5.5	4.7	5.9	4.7	6.4	5.5
일자리가 없어서	14.0	16.8	6.0	24.9	9.1	21.0	13.4	7.9
건강이 좋지 않아서	44.9	41.1	55.8	39.3	47.4	45.3	48.6	41.2
가사일 때문에	4.7	5.6	1.8	0.7	6.5	8.2	4.2	1.6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1.1	0.8	1.9	1.3	1.1	0.8	1.2	1.3
연로해서	9.5	8.1	13.5	9.4	9.5	3.7	6.3	17.7
기타	0.2	0.1	0.3	0.3	0.1	0.3	0.2	0.1
계 (명)	100.0 (1,541)	100.0 (1,149)	100.0 (392)	100.0 (481)	100.0 (1,060)	100.0 (522)	100.0 (473)	100.0 (546)

주: 1) 현재 취업중인 본인응답자 676명 중 무응답 3명 제외함.

2) 비해당 826명과 무응답 5명(대리응답 148명 포함)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서 16.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부의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노인이 55.8%, 연로해서 일을 못하는 노인이 13.5%로, 동부 지역의 41.1%와 8.1%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읍·면부 거주 노인의 상당 부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취업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24.9%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9.1%만이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47.4%로 남자노인의 39.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가사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여성노인의 경우는 6.5%인데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는 0.7%에 불과하다.

## 2. 노인의 수입원

노인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로 66.3%이며, 다음으로 일·직업으로부터의 수입으로 33.7%이다<sup>1)</sup>.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도 23.3%로 비동거자녀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자녀동거율(49.2%)에 비추어 볼 때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절반 정도는 동거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집세로부터의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2.0%이고, 생활보

비취업사유로는 비취업노인의 44.9%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이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는 20.2%, 일자리가 없어서 14.0%, 그리고 9.5%는 연로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조사한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29.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호 및 노령수당 등 국가로부터의 보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도 8.5%에 달하고 있다.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일생 동안의 근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노후소득은 각각 2.8%, 0.9%, 0.2%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의 보조와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부의 노인만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갖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높은 읍·면부의 경우 일·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52.0%로 동부 거주 노인의 23.1%에 비하여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의 보조의 측면을 살펴보면 읍·면부의 경우는 비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가 약간 높은 반면, 동부 노인의 경우는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가 약간 높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녀로부터의 전반적인 보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sup>2)</sup>. 부동산·집세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동부가 13.2%로 읍·면부의 9.8%보다 높다. 또한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경우도 동부(각각 4.0%, 1.0%, 0.3%)가 읍·면부(각각 0.9%, 0.7%, 0.2%)보다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로부터의 보조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표 3. 노인의 수입원<sup>1)</sup>

(단위: %)

수입원	전체	지역		성		연령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일·직업	33.7	23.1	52.0	48.2	25.2	46.5	32.3	18.0
부동산·집세	12.0	13.2	9.8	13.6	11.0	12.8	13.4	9.4
저축·증권의 이익배당	5.7	6.8	3.7	8.1	4.3	6.7	4.3	5.8
연금	2.8	4.0	0.9	5.1	1.5	3.8	4.2	0.2
퇴직금	0.9	1.0	0.7	1.7	0.4	1.6	0.5	0.3
개인연금	0.2	0.3	0.2	0.2	0.3	0.3	0.4	0.0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	66.3	64.0	70.3	62.4	68.6	62.5	68.3	69.2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	23.3	24.8	20.8	16.3	27.5	20.2	22.7	28.3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1.2	1.8	0.2	0.7	1.5	1.1	0.9	1.6
국가보조	8.5	8.6	8.3	6.8	9.5	6.5	10.0	9.7
단체로부터의 보조	0.7	0.8	0.3	0.6	0.7	0.4	1.0	0.6

주: 1) 복수응답의 결과임(N=2,224명: 대리응답 148명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2) 이는 동부지역의 자녀동거율이 읍·면부에 비하여 높은 데서 나타나는 차이로 이해된다.

하는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직업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경우 관련수입이 있는 노인이 매우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노인의 지출

#### 가.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노인의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3가지를 조사한 결과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4.3%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많이 지적한 것은 본인·배우자 또는 전가족의 생활비로 전체 노인의 약 40%가 생활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약값·의료비로 24.8%, 본인·배우자의 용돈이 12.3%, 경조비·친목회비가 10.1%가 된다. 두 번째로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약값·의료비, 생활비, 본인·배우자 용돈, 경조비·친목회비의 순이며, 세 번째로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본인·배우자 용돈, 약값·의료비, 경조비·친목회비의 순이다. 즉, 생활비가 가장 노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항목이며, 다음이 약값·의료비로 노인들의 대부분이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경조비·친목회비가 노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데는 필수적인 지출항목이며, 본인의 자체 수입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역시 부담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경조비·친목회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노인의 경우(15.7%) 여자노인(6.8%)에 비하여 월등히 높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여자노인에 비하여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고, 부부일 경우 주로 남자노인이 경조비·친목회비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의 용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전가족 생활비가 부담된다고 응답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의 보조와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의 노인만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갖고 있다.

한 비율은 낮아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항목에 부담을 많이 느낌을 볼 수 있다.

표 4. 부담이 되는 순서별 지출항목<sup>1)</sup>

(단위: %)

지출항목	첫째	둘째	셋째
없음	4.3	26.7	69.1
본인·배우자 용돈	12.3	14.7	9.2
경조비·친목회비	10.1	14.1	6.3
생활비	39.9	15.5	2.9
약값·의료비	24.8	22.1	7.6
기타	8.6	6.9	4.9
계	100.0	100.0	100.0

주: 1) 대리응답 148명과 무응답 3명 제외함(N=2,2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표 5.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sup>1)</sup>

(단위: %)

지출항목	전체	지역		성		연령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없음	4.3	3.7	5.5	3.6	4.7	2.8	3.4	7.3
본인·배우자 용돈	12.3	12.6	11.9	13.7	11.5	7.0	11.1	20.6
경조비·친목회비	10.1	9.5	11.0	15.7	6.8	12.9	10.4	6.0
생활비	39.9	41.1	37.6	42.9	38.0	46.5	39.0	31.9
약값·의료비	24.8	25.1	24.4	17.2	29.3	22.5	27.9	25.0
기타	7.6	8.1	9.7	7.1	9.6	8.5	8.3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21)	(1,406)	(815)	(822)	(1,399)	(883)	(670)	(668)

주: 1) 대리응답 148명과 무응답 3명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나. 월평균 용돈액수

노인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돈 외에 한 달에 평균 7만 9천원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비율이 높은 액수는 1~9만원으로 56.1%이며, 10~19만원의 경우는 21.3%, 20만원 이상은 11.9%이다. 전혀 용돈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도 10.7%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20만원 이상인 노인의 비



율이 13.6%로, 읍·면부의 8.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 액수가 적어짐을 볼 수 있는데 65~69세 연령군의 경우는 15.8%가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70~74세 연령군의 경우는 12.6%, 7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5.9%에 불과하다. 또한 용돈이 전혀 없다는 노인의 비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7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12.6%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월평균 11만 9천원을 쓰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용돈액수가 매우 적어 평균 5만 5천원이며,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도 5.9%에 불과하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22.0%가 20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쓰고 있다. 또한 용돈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남자노인(5.2%)에 비하여 여자노인(14.0%)이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다. 생활비 부담자

노인들의 가구수준에서의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에서 중요한 지출항목이라고 생각되는 주택, 식생활, 의류·생필품, 보건·의료비, 축의금·부조금, 여가생활 비용 등 6가지 항목의 지출부담자를 자신·배우자 전액부담, 다른 사람 일부부담, 다른 사람 전액부담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소득원과는 상관없이 지출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획득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노인·배우자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돈으로 각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노인·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혀 관련내용의 지출이 없는 노인은 제외하고 조사되었는데 여가생활의 경우 노인의 12.7%는 전혀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sup>.

노인의 월평균 용돈 액수는 7만 9천원으로 1~9만원을 쓰고 있는 노인이 56.1%, 10~19만원이 21.3%, 20만원 이상이 11.9%이며, 전혀 용돈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도 10.7%에 달하고 있다.

3) 여가생활의 경우는 본인응답 노인의 283명(12.7%)이 전혀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축의금·부조금의 경우는 130명(5.8%),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12명, 주택비용의 경우는 2명, 식생활비의 경우는 1명만이 관련된 지출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6.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용돈액수<sup>1)</sup>

(단위: %, 천원)

구 분		없음	1~9만원	10~19만원	20만원 이상	계(명)	평균
전 국		10.7	56.1	21.3	11.9	100.0(2,211)	79
지역	동 부	10.3	54.4	21.6	13.6	100.0(1,401)	87
	읍·면부	11.5	58.9	20.8	8.8	100.0( 810)	66
성	남 자	5.2	43.7	29.1	22.0	100.0( 821)	119
	여 자	14.0	63.4	16.7	5.9	100.0(1,390)	55
연령	65~69세	9.0	50.4	24.8	15.8	100.0( 879)	95
	70~74세	11.1	55.6	20.7	12.6	100.0( 669)	79
	75세 이상	12.6	64.1	17.4	5.9	100.0( 664)	57

주: 1) 대리응답 148명과 무응답 12명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표 7. 지출항목별·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배우자가 전액 지출하는 비율<sup>1)</sup>

(단위: %)

구 분		주택비용	식생활비	의류·생필품비	보건·의료비	축의금·부조금	여가생활비
전 국		61.0	58.9	44.3	43.5	57.2	55.8
지역	동 부	61.3	59.4	46.1	43.6	56.3	54.5
	읍·면부	60.5	58.1	41.3	43.4	58.7	58.1
성	남 자	75.2	71.6	56.0	54.9	72.1	66.7
	여 자	52.6	51.5	37.4	36.8	48.0	49.0
연령	65~69세	73.7	72.5	54.6	53.6	70.7	65.2
	70~74세	63.8	59.5	43.9	42.7	59.0	58.8
	75세 이상	41.2	40.4	31.2	31.1	36.8	40.0

주: 1) 각 항목별 지출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항목별로 노인·배우자 자신이 전액부담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주택비용의 경우가 가장 높아 61.0%이며, 다음은 식생활비, 축의금·부조금, 여가생활비용, 의류·생필품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항목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출의 40~60% 정도는 노인·배우자 자신이 전액부담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전액부담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주택비용의 경우가 가장 높아 31.7%이며, 다음은 식생활비(28.1%), 축의금·부조금(24.8%), 의류·생필품비(24.5%), 보건·의료비(22.0%), 여가생활 비용(15.5%)의 순서이다. 즉, 주

택비용의 경우는 노인·배우자 자신이 전액 부담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액부담하는 양극화가 가장 분명하다. 반면 보건·의료비, 의류·생필품비, 여가생활비의 경우는 노인·배우자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여가생활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전액부담하는 비율이 15.5%로 제일 낮아 지출할 돈이 없으면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여가생활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항목별로 전액 노인·배우자가 지출하고 있는 비율을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배우자가 전액 지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여자노인의 경우가 남자노인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

#### 4.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경제상황은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인들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평가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의 1.7%만이 동년배와 비교하여 매우 좋다고 평가하고 약간 좋다는 9.5%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은 11.2%에 불과하다. 반면 약간 나쁘다는 응답이 28.4%, 매우 나쁘다가 21.5%로 절반의 노인이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 및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세대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경로연금제도는 현세대의 노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경로연금은 80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4만원,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5만원, 저소득 노인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노인의 평균 용돈규모인 7만 9천 원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

노인·배우자 자신이 전액부담하는 항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주택비용이 가장 높아 61.0%이며, 다음은 식생활비, 축의금·부조금, 여가생활비용, 의류·생필품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상태<sup>1)</sup>

(단위: %)

구 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 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명)
전 국		1.7	9.5	38.9	28.4	21.5	100.0(2,219)
지역	동 부	2.1	8.8	38.2	27.7	23.3	100.0(1,406)
	읍·면부	1.0	10.9	39.9	29.7	18.5	100.0( 814)
성	남 자	2.3	11.4	41.5	29.3	15.5	100.0( 822)
	여 자	1.3	8.4	37.3	27.9	25.0	100.0(1,397)
연령	65~69세	1.4	9.4	39.9	29.7	19.6	100.0( 884)
	70~74세	2.1	9.1	36.5	28.3	24.0	100.0( 669)
	75세 이상	1.7	10.2	39.9	26.8	21.5	100.0( 666)

주: 1) 대리응답 148명과 무응답 5명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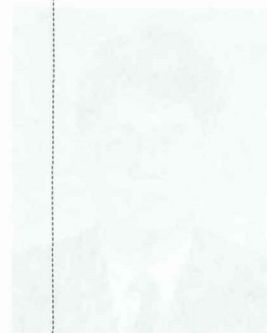
히 지급액이 인상되어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경로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노인이 약 40%에 이르고 있고, 용돈이 10만원도 안 되는 노인들이 60%를 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경로연금이 노인의 20.4%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제도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인 노인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노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들은 대부분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전문직 및 사무직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낮는데 이는 이들 직종의 정년이 매우 빠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은퇴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작업에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공유(job sharing), 시간제 근무 등 근로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도 비취업노인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 중 약 10%에 해당하는 30

만명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기초한 노인적합직종의 확대 및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한편,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지역사회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육-여가-취업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

노인의 평균 용돈규모인 7만 9천원에도 못미치고 있는 경로연금 지급액이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경로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노인복지법 제10조 제1항